



박완서 이야기  
조성 기념전

Inaugural Exhibition of  
Park Wansuh Archive



© 구본창

2026.  
02.09.  
MON

04.30.  
THU

중앙도서관 본관 4층  
서울대학교  
헤리티지 라이브러리

#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Something So Wondrous and Beautiful

## 기념전을 열며

서울대학교 헤리티지 라이브러리를 조성하면서, 도서관은 과연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완서 아카이브는 그 고민에 대한 중앙도서관 나름의 길 찾기의 결과입니다.

대학도서관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희망과 생명력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대학 시절 이곳에서 연마한 지식과 지혜가 삶의 고비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의 문을 열어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가 공감과 배려의 따뜻한 길로 가는 문을 열어내기를 희망합니다.

남루한 시대 인간 사랑의 글쓰기를 지속한 박완서 작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꿈을 더없이 투명하게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은 지금의 세대가 관대하고 세련된 삶의 태도를 배우고, 깊이 있고 따뜻한 세상을 일구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삶과 정신이 담긴 아카이브를 만들고자하는 우리의 도전이 오늘날 실현되기까지, 실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맞이할 선물 같은 공간과 전시를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 박완서

(朴婉緒, 1931.9.15.~2011.1.22.)

한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로서, 1931년 경기도 개풍군 박적골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를 거쳐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40세에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타계한 2011년까지 주로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쟁의 비극, 중산층 의식, 여성 문제와 노년의 삶을 다룬 다양한 소설·산문·동화 등을 발표하였다.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

---

## On the Opening of the Commemorative Exhibition

When we decided to establis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itage Library, it was inevitable for us to contemplate the nature and the role of a library. The Park Wansuh Archive is what the SNU Library arrived at as the ultimate realization of that contemplation.

A university library is where the hope and vitality of the youth, as they dream of the future, become exuberant. Knowledge and wisdom they master here, during their university years, will be the very key that raises them up in times of crisis and serves as a key to the doors of their future. We hope these keys will open doors that guide them toward the warm path of empathy and consideration.

Park Wansuh is an author who maintained to write the love of mankind during an impoverished era, also the one who most transparently fulfilled the mission we dream of. Her life and literary works will become the key for the present generation to learn a generous and sophisticated attitude toward life, thereby cultivating the world to be profound and warm.

An immense number of individuals have contributed their efforts and support, enabling our mission to establish an archive that holds Park Wansuh's life and spirit. It is a truly wondrous and beautiful occasion that we built this gift of a place and an exhibition to welcome future generations

### Park Wansuh

(朴婉緒, 1931.9.15.~2011.1.22.)

A representative writer of Korean literature, Park Wansuh was born in 1931 in Bakjeok-gol, Gaepung, Gyeonggi Province. In 1950, after graduating from Sookmyung Girls' High School, sh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she suspended her studies due to the Korean War, she began her literary career when her novel 『The Naked Tree』 won the 『Woman Donga』 contest for full length novels. Until her passing in 2011, she published novels, essays, and children's stories addressing war tragedy, middle-class consciousness, women's issues, and aging, based on her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She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letters in 2006 and the Geumgwang Order of Cultural Merit in 2011.

---

---

## 500년을 산 작가, 박완서

1996년 박완서는 자신이 ‘500년은 산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 이로부터 15년을 더 살고 그녀는 2011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1931년에 태어난 박완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중산층의 형성 등 요동치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살아내었다.

박완서가 겪은 육중한 삶의 부피는, 곧 그녀가 글을 쓰게 하는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다. 그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경험이 누적 돼서 속에서 웅성거려야”함을 강조했는데, 삶의 다종다양한 경험들이 글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500년의 밀도를 가진 시간 동안 누적된 풍부한 경험들이야말로, 그의 문학적 토양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박완서 아카이브는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작가가 집필에 영감을 받았던 수많은 책들, 생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 가족과 지인들과 오갔던 편지들, 그리고 일기와 사진을 망라해 보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박완서가 살아온 생의 구체적 부면을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낸 500년의 시간, 곧 한국 근현대사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조감케 한다.

## Park Wansuh, an Author who Spanned Five Centuries

In 1996, Park Wansuh remarked in her retrospection, “It feels as if I have lived for five hundred years.” She passed away in 2011 at the age of 80. Born in 1931, her life went through the turbulence of modern Korean history, mark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The immense volume of life Park Wansuh bore served as both the reason and motivation for her writing. She emphasized that to create a great work, “experiences must accumulate inside until they become a rumbling,” meaning one must wait for life’s diverse experiences to naturally emerge as text. The abundant experiences she gathered over a period as dense as five hundred years became the foundation of her literary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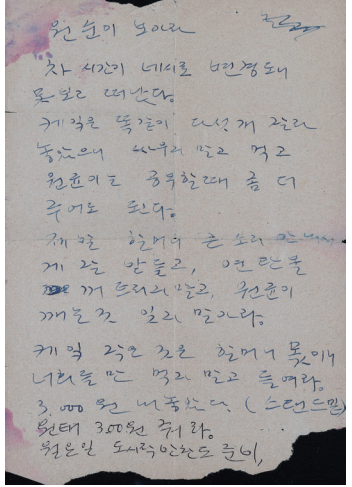
Park Wansuh Archive preserves not only her literary works but also numerous books that inspired her, personal belongings she used throughout her life, letters to family and friends, journals, and photographs. These materials allow us to explore specific aspects of her life, the five hundred years she lived, and the great flow of modern Korean history.

---



고교시절의 박완서, 숙명여고 졸업앨범, 1949, 사진.

Park Wansuh in High school, Yearbook of Sookmyung Girls' High School, 1949, Photograph.



박완서, <원순이 보아라>, 딸에게 남긴 메모, 1970년대, 종이.

Park Wansuh, <To Wonsun>, Note to her daughter, 1970s, paper.



타계 직전 읽던 책들, 2011, 도서와 바구니, 37.5 x 26.3 x 33 cm.

Books She Read Right Before Passing, 2011, Books and a Basket, 37.5 x 26.3 x 33 cm.

---

## 처음이자 마지막 책상

‘노란집’이라 불리는 박완서의 구리시 아치울 집에는 아늑하고 멋진 서재가 마련되어 있었다. 방의 왼편에 책장과 책상이 있어서, 의자에 앉아 오른편의 큰 창을 보면 마당의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이 이 서재의 책상 위에서 탄생했다.

여성 작가로서 비로소 갖게 된 ‘자기만의 방’이라는 점에서, 박완서의 서재는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다른 남성 작가의 서재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섯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박완서는 가족을 돌보다가 틈틈이 어두운 방에 혼자 엎드려서 『나목』을 썼고, 이렇게 등단한 지 15년이 지난 1985년이 되어서야 자기만의 책상을 가질 수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박완서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머문 이 아치울 서재를 그대로 보존하여 옮겨 왔다. 작가 생전에 의자는 몇 번 바꾸었지만 책상은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치울 서재의 책상은 박완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상이다. 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간 그녀의 경이로운 힘과 따뜻한 마음이 이 책상에 깃들어 있다.

## The First and the Last Desk

Park Wansuh's home in Achiul, Guri, is known as the 'Yellow House,' which features a cozy, nice study. With a bookshelf and desk on the left, the room allows one to view the beautiful garden through a large window on the right. It was at this very desk that her novels, including 『A Very Old Joke』, and 『The Man's House』, were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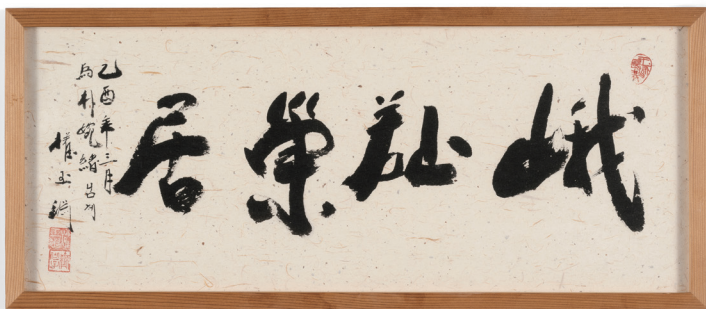
As a 'room of one's own' she finally owned as a woman writer, her study holds a greater significance compared to those of her male contemporaries. However, securing a space and time for herself was not an easy task as a mother of five. When she wrote 『The Naked Tree』, she had to lie on her stomach in a dark room while caring for her family. It took 15 years after her debut for her to finally have a desk of her own, in 1985.

SNU Library preserved and brought in the Achiul Study, which Park Wansuh cherished with special care, exactly as it was. While she changed her chairs several times throughout her life, she never replaced this desk. Therefore, the desk in the Achiul Study is the first and the last desk. It is the desk that holds extraordinary energy and warm heart of the one who went through the difficulties of life.

---



아치울의 서재, 2002, 사진.  
Study in Achiul, 2002, Photograph.



권옥연, <아차소거(峨嵋巢居) 현판>, 2005, 종이에 먹, 66.6 x 28.6cm.  
Kwon Ok Yon, Acha Sogeo Signboard, 2005, Ink on paper, 66.6 x 28.6 cm.



서재 책상, 1986, 목재, 150.0 x 80.0 x 72.8cm.  
Study Desk, 1986, Wood, 150.0 x 80.0 x 72.8cm.

---

## 노년에 일군 유년의 뜰

박완서는 구리시 아치울의 ‘노란집’으로 이사하여 2011년 타계하기까지 생의 마지막 10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노란집은 아파트 생활로 숨이 막혔던 그녀에게 “생각만으로도 비죽비죽 웃음이 나올 정도로” 큰 위안을 주는 곳이었다.

노란집에 이사오자마자 박완서는 제일 먼저 마당에 ‘유년의 뜰’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 뜰에서 그녀는 그리운 이북의 고향, 박적골의 여러 꽃들을 피워내었다.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100여가지의 꽃들과 함께 그녀는 봄 떠오를 것 같은 황홀감을 맛보았다. 직접 호미를 들고 흙을 주무르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평화를 선사하였다.

정원의 꽃과 나무 중에 그녀가 단연 아끼던 것은 바로 살구나무였다. 그것은 박적골의 살구나무를 떠올리게 했고, 박수근의 나목과도 닮았기 때문이다. 6월이면 으레 살구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서 잼을 만들었다. 이 살구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연례 행사였는데, 이처럼 마당을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노년 삶의 생동을 북돋아주는 행복한 노동이었다.

## Garden of Youth Cultivated in Old Age

After moving into the ‘Yellow House’ in Achiul, Guri, Park Wansuh spent the last ten years of her life there until 2011. To her, who felt suffocated by apartment life, the Yellow House was a place of such huge comfort that she once remarked, “Even just thinking about it, I cannot stop smiling.”

As soon as she moved into the Yellow House, the first thing Park Wansuh did was to cultivate the ‘Garden of Youth.’ In this garden she grew many flowers from Bakjeok-gol, the hometown in the North she missed. With about 100 types of flowers blooming and falling through the seasons, she felt an ecstasy as if she were floating on air. Grabbing a hand hoe and stroking the ground on her own presented her with invaluable happiness and peace.

Among all the flowers and trees in the garden, her favorite was the apricot tree. It was because it reminded her of the apricot tree in Bakjeok-gol, and resembled “Tree”, a painting by Park Sookeun. Every June, she would take the fruits from the tree to make jam. Sharing this apricot jam with others was an annual event, which proves that tending the garden was a joyful labor that nourished her life in her later years.

---



아치울 정원의 박완서, 2000년대, 사진.  
Park Wansuh in Achiul Garden, 2000s, Photograph.



아치울 정원에 핀 꽃들(분꽃, 파리, 은방울꽃), 2025, 사진, 호원숙 촬영.  
Flowers in Bloom in the Achiul Garden, 2025, Photograph, Photo by Ho Won Sook.



호미, 연도미상, 철제, 33.0 x 13.0 x 5.0 cm.  
Hand Hoe(Homi), Date Unknown, Iron, 33.0 x 13.0 x 5.0 cm.

---

## 박완서 문학의 세 줄기, 전쟁 · 대중 · 여성

한국 근대 백 년을 포괄하는 박완서의 문학 세계를 다루는 것은 야심차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문학을 뒷받침하는 세 갈래의 줄기로서 전쟁, 대중, 여성이라는 주제에 집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9편의 장편소설을 살펴본다.

먼저 ‘전쟁을 증언하다’에서는 박완서 문학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전쟁 이야기에 주목한다. 작가의 실제 체험이 녹아든 작품들 속 주요 장소를 지도에 옮기고, 당대 풍경 및 박완서 삶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되살아나는 그의 전쟁 기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 본다.

다음으로 ‘대중과 만나다’에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물질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건강한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대중매체로 재창작된 박완서 문학의 대중성을 재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해방을 꿈꾸다’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싼 억압 및 세대와 계급을 가로지르는 여성의 적대와 연대 가능성을 탐구하는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학 3부작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박완서 문학이 던지는 페미니즘의 사유를 재조명한다.

## Three Main Streams of Park Wansuh's Literary Works: War, Public, and Women

Tracing the literary world of Park Wansuh is an ambitious and challenging task, as her work profoundly encompasses a century of moder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is exhibition focuses on three core pillars of her literature: War, the Public, and Women. For these themes, we suggest exploring nine of her novels.

First, in ‘Giving witness to the war’, we examine the war narratives that permeat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Park Wansuh's literature. We step closer into her memory of war, by mapping the significant locations from her novels that hold the writer's actual experiences, and with the help of photographs of historical landscapes and her life that bring those memories back to life.

Next, in ‘Engaging with the public’, we delve into her critiques of the materialism and middle-class hypocrisy that gripped Korean society during the era of rapid post-war growth. We also reevaluate Park Wansuh's works as reproduced in mass media,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healthy capitalism.

Lastly, in ‘Dreaming of women's liberation’, we examine Park Wansuh's feminist trilogy tha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female hostility and solidarity, while intersecting oppression of women,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within the patriarchal society. Thus, we reassess the feminist insights Park Wansuh's literature poses today.

---



『나목』 제3회 여류장편소설 당선작 발표, 『여성동아』, 1970.11.  
『The Naked Tree』 the 3rd Women's Novel Contest Winner Announced, 『Woman Donga』, 1970.11.

『나목』 시상식날 박완서와 남편 호영진, 1970, 사진.  
Park Wansuh and her husband, Ho Youngjin, on the award ceremony day for 『The Naked Tree』, 1970, Photograph.



드라마 <미망> 1화, 1996.1.23., 영상, 59분 30초, MBC 제작, MBC 소장.  
Drama <Mimang> Episode 1, 1996.1.23., Video, 59 min 30 sec, Produced by MBC, Provided by MBC.



박완서, 『떠도는 결혼』 1화, 『주부생활』, 1982.4.  
Park Wansuh, The First Installment of 『The Wandering Marriage』, 『Jubu Saenghwal(Housewife's Life)』, 1982.4.

---

## 세계 속의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왔다. 1978년 첫 번역된 이래, 현재까지 약 93권의 번역서가 발간되었다. 1970~80년대 7권, 1990년대 17권, 2000년대 29권, 2010년대 27권이 출간되었으며, 2020년대에도 13권이 출간되는 등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활발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박완서 아카이브는 88권을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번역은 총 25개국 20개 언어권에서 이루어졌으며, 영어로 21회, 일본어로 14회, 중국어로 13회, 프랑스어로 10회 번역되었다. 그 외에 헝가리어·루마니아어·네덜란드어·튀르키예어·히브리어 등 한국어권에서 비교적 낯선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이는 박완서 문학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은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이다.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등으로 총 13회 번역되었다. 한국전쟁기 작가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박완서 문학이 그려내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이 세계인에게 보편적 공감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Park Wansuh's Literary Works on the Global Stage

The literary works of Park Wansuh have garnered immense love not only in Korea but also from readers across the globe. Since the first translation in 1978, approximately 93 translated editions have been published to date: 7 editions in the 1970s to 80s, 17 editions in the 90s, 29 editions in the 2000s, 27 editions in the 2010s, and 13 editions in 2020s. Even now, new translations continue to be actively produced. Among these, the Park Wansuh Archive has collected and currently holds 88 of these editions.

Internationally, her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20 languages across 25 nations: 21 editions in English, 14 in Japanese, 13 in Chinese, and 10 in French. Her literature has also been translated in Hungarian, Romanian, Dutch, Turkish, Hebrew, and other relatively unfamiliar languages. This shows that Park Wansuh's literature has built a broad global readership,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language and culture.

The most translated work, available in the greatest variety of languages, is the novel 『Who Ate Up All the Shinga?』. It has been rendered into 13 languages, including Japanese, English, French, Romanian, and Turkish and other languages. It is noticeable that her work, based on the autobiographical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depicting the reality of Korean history, continues to resonate with universal empathy from readers worldwide.

---



---

## 서울대, 푸르른 봄날의 기억

박완서에게 서울대학교는 단순한 대학 그 이상의 존재였다. 못다 핀 청춘과 전쟁의 아픔, 그리고 문학의 출발점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박완서는 해방 후 학제 변경으로 라일락이 피던 1950년 5월에 졸업식을 치르고 봄이 한창 무르익은 화창한 6월에 서울대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생계를 위해 PX에 근무하게 되면서 채 한 달도 되지 못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후 문리대 앞을 지날 때마다 박완서는 동승동 캠퍼스의 라일락 향기가 절정에 달할 때면 심한 가슴앓이를 하곤 하였다. 눈부시게 빛났으나 너무도 짧았기에 그녀는 “그해 5월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것은 아마도 그게 제 청춘의 마지막 5월이기 때문”이라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학업을 향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도 문학의 열정을 놓지 않았다. 결국 1970년 『나무』로 등단하여 30여 년 간 왕성히 문필 활동을 이어갔고, 2006년 서울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가 입학한 지 56년만의 일이었고, 공교롭게도 5월의 일이었다. 1950년 6월이 길게 남긴 상흔 속에서,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푸르른 봄날의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 Seoul National University, Memories from the Evergreen Days

To Park Wan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more than just a mere university. It was a symbolic place where her turbulent youth, the trauma of the war, and the beginning of her literary works intersected. After the liberation, due to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she graduated in May, 1950 and enroll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unny June, when spring was in full bloom.

However, with the outbreak of the war, in less than a month after entering, she was forced to leave the university and work at the PX for living. Thereafter, in the season when the scent of lilacs on the Dongsung-dong campus grew thick, she felt a deep heartache whenever she passed 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Recalling those blindingly bright yet fleeting days, she remarked: “Perhaps the reason that May was unusually beautiful was because it was the last May of my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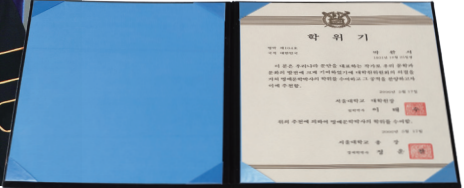
Nevertheless, her passion for learning never faded. Even while raising five children, she never let go of her enthusiasm for literature. At last, she made her debut with 『The Naked Tree』 in 1970. Since then, her literary career flourished for about 30 years, and in 2006, she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Letters. It was 56 years after her enrollment, and the event was, by coincidence, held in May. Within the scar left by the June of 1950, Seoul National University would hold a place in her heart as a memory of an evergreen spring.

---



명예문학박사 학위수여식의 박완서, 2006, 사진.

Park Wansuh at the Honorary Doctorate of Letters Ceremony, 2006, Photograph.



서울대학교 명예박사 학위기, 2006, 종이.

Honorary Doctorate Diplom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Paper.



정문에서 바라본 문리과대학 본관 모습, 1949, 사진,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소장.

Main Building of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een from the Main Gate, 1949, photograph, Provid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 들뜬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 박완서 소설가

서울대생이 된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을까, 또 남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을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드린 공은 얼마나 남달랐을까 슬며시 궁금 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축하를 얻은 것처럼 흐뭇해 하셨을테고, 남들은 별을 딴 것처럼

뿔 부러워했을테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가래를 당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붕 뜬 중실이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붕 뜬 때가 있으면 땅을 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높이 높이 띄운 건 남의 힘이지만 땅을 딛는 건 제 힘이여야 합니다. 그것마저 남의 힘에 맡겼다면 멀어지고말지 결코 땅을 딛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대생이 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남이라도 "저 사람이 올해 서울대에 붙었대"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한번 볼 걸 몇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하와 박수는 구경꾼의 몫이지만, 실은 해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는 걸, 대단한 일을 해낸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는 터무니없이 파종한 집이 지워졌을뿐이라는 걸 깨달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거창한 구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누리던 왕자님 공주님의 허상을 벗는 일부터 일지도 모르겠군요. 제 밥그릇 제가 씻고, 제 양말 제가 빨고, 제 방 제가 정돈하고, 라면이나 김치볶음밥쯤은 제 식성에 맞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시시한 일부터 말합니다(이건 결코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따로 겨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박완서, 「들뜬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대학신문』 제1272호, 1990.3.5.

Park Wansuh, 「Break Away from the Pumped Up Satisfaction」, SNU News No. 1272, 1990.3.5.

---

## 생을 향한 사랑의 기록

2011년 1월 22일, 향년 80세의 나이로 타계하기 이틀 전까지 박완서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감상을 소박한 필치로 기록하였다. 11권의 일기는 박완서가 10여 년간 손으로 꼭꼭 눌러쓴 육필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삶과 존재, 정신과 육체의 생생한 증언이자 노경에 접어든 위대한 작가의 나이듦에 대한 보고서이다.

박완서가 죽을 때까지 현역작가이고 싶었던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므로 그에게 글쓰기란 결코 삶과 분리된 별개의 행위가 아니었다. 글쓰기란 삶을 사랑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고, 삶을 충실히 살아간 경험에서 길어 올려지는 무엇이었으며 그 사랑하는 삶의 결과이자 기록이었으므로 글의 터전과 삶의 터전은 결국 하나였다.

박완서의 소설이 거대 담론과 이념에 포획되지 않은, 가식과 위선에 결박되지 않은 인간이 마주하는 생의 진실을 경이롭게 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평생 바지런히 삶의 터전을 김매고 경험의 우물을 파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하게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11권의 일기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고 할 만큼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진솔하게 살아갔던, 박완서의 생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다.

## Records of Adoration for Life

January 22, 2011, until her passing at the age of 80, Park Wansuh documented her daily and thoughts with her simple handwriting. The fact that the 11 volumes of journals are hand-written manuscripts produced over a decade makes them serve as a vivid testimony to her life and existence, spirit and body and a report on the great writer's aging in her later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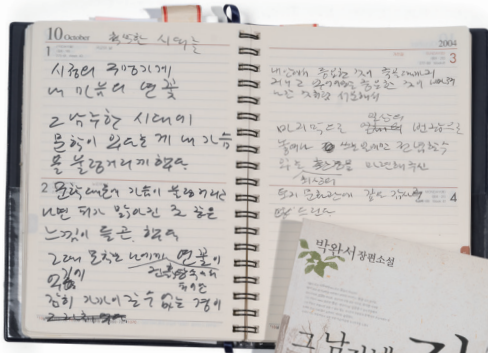
The reason Park Wansuh wanted to remain as a contemporary writer was because of her love for life, which made writing and life inseparable to her. To her, writing was her own way of loving life, and at the same time, it was something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a life lived devotedly. Also it was taken as a result and a record of the life she loved. Therefore her ground of writing and ground of life were one and the same.

If Park Wansuh's novels marvelously present the truth of life encountered by people never captured by any great discourse nor ideology, unbound by pretense nor hypocrisy, it should be because she so purely loved her life until the very last moment, briskly weeding the ground of her life and digging the well of experience for all her life. The 11 volumes of journals are a document of Park Wansuh's love for life, who lived her life devotedly and sincerely, as if there were never the same days.

---



박완서, 2001~2011년 일기.  
Park Wansuh, Diaries from 2001 to 2011.



박완서, 2004년 일기, 2004.10.1.  
“내 마음의 연꽃 그 남루한 시대에 문학이  
있다는 게 내 가슴을 울려거리게 했다.”  
『그남자네 집』 관련 메모  
Park Wansuh, Journal from 2004, 2004.10.1.  
“A lotus in my heart The fact that literature existed  
in such a shabby era makes my heart flutter.”  
A memo on 『The Man's House』



박완서, 2011년 일기, 2011.1.20.  
“살아나서 고맙다. 그동안 병고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죽었으면 못 볼 좋은 일은 얼마나  
많았나. 매사에 감사.”  
Park Wansuh, Journal from 2011, 2011.1.20.  
“Grateful for being alive. Though every day was  
painful due to illness, how much I would have  
missed, if I died. Grateful for everything.”

## 전시 연계 프로그램

### ● 연주

#### SNUPO 연주

- 연주 장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
- 연주 일정: 2026. 2. 9. (월) 16:00
- 연주 곡명: '완서' 주제에 의한 피아노 트리오

#### 기타등등 버스킹

- 공연 장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로비
- 공연 일정: 2026. 2. 11. (수) 14:00 ~ 14:40
- 공연 플레이리스트: [사랑과 질문으로 살아온 시간들]

### ● 전시

#### 미동(美動) 작품전

- 전시명: 『박완서를 보다: 문학에서 미술로』
- 전시 장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
- 전시 기간: 2026.2.9. (월) ~ 4.30. (목)

### ● 공연

#### 사회대연극당 연극 공연

- 공연 제목: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 공연 장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로비
- 공연 일정: 2026. 2. 12. (목) 16:00 ~ 17:20,  
2. 13. (Fri) 14:00 ~ 15:20 / 17:00 ~ 18:20

## 박완서 아카이브 조성 기념전

주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획 및 연출	중앙도서관 기록문화유산팀
전시 장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4층 헤리티지 라이브러리
전시 관람 시간	2026. 2. 9. ~ 4. 30.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록문화유산팀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62동) 4층

02-880-5276

libheritage@snu.ac.kr

<https://rarebook.snu.ac.kr>

---

---

## Exhibition-related Programs

### • Musical Performances

#### SNUPO Performance

- Venue: SNU Library Kwanjeong Building, Kwanjeong Maru
- Date: 2026. 2. 9. (Mon) 16:00
- Title: A piano trio on the theme of 'WANSEO'

#### Busking by Guitar DoongDoong

- Venue: SNU Library Kwanjeong Building 1F Lobby
- Date: 2026. 2. 11. (Wed) 14:00 ~ 14:40
- Performance Playlist: [Times Lived by Love and Questions]

### • Exhibition

#### Midong Art Exhibition

- Title: 『To Behold Park Wansuh: From Literature to Art』
- Venue: SNU Library Kwanjeong Building, Kwanjeong Maru
- Exhibition Period: 2026. 2. 9. (Mon) ~ 4. 30. (Thu)

### • Stage Performance

#### A Play by Theatre of Social Sciences

- Title: Please Enter the Title
- Venue: SNU Library Kwanjeong Building 1F Lobby
- Date: 2026. 2. 12. (Thu) 16:00 ~ 17:20,  
2. 13. (Fri) 14:00 ~ 15:20 / 17:00 ~ 18:20

## Inaugural Exhibition of Park Wansuh Archive

Organized by: SNU Library

Curated and Produced by: Documentary Heritage Team, SNU Library

Exhibition Venue: SNU Library Main Building 4th floor, HERITAGE  
LIBRARY

Exhibition Hours 2026. 2. 9. ~ 4. 30.

Weekdays 10 AM ~ 5 PM

Sat&Sun 1 PM ~ 5 PM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ocumentary Heritage Team  
08826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ain Building(Building 62),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02-880-5276

libheritage@snu.ac.kr

<https://rarebook.snu.ac.kr>

---

